

테러 보고서, 세계적 도전과제 강조 2006년 국제 테러공격 25% 증가

데이빗 맥키비
USINFO 스태프라이터
2007년 4월 30일

워싱턴 - 국무부의 연례 세계 테러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국제 대테러 협력이 개선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테러 전술과 이라크 폭력사태 급증으로, 2006년 전세계에서 테러 발생이 2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율과 정보 공유를 통해 전세계의 동맹국 및 동반자들과 협력하면서, 우리는 테러범들이 운신하기가 좀더 어려워진 환경을 조성했다. 테러 지도부는 끊임없이 옮겨 다니거나 은신해야만 했으며 테러 공격을 계획하고 실행에 옮기는 능력 또한 약화되었다”고 4월 30일 공개된 2006년 보고서는 밝히고 있다.

312쪽 분량의 이 보고서에 따르면, 국경 안보 및 수송 안전 개선, 긴밀한 정보 공유 및 군사 협력, 테러자금 추적 및 동결의 성공을 통해 “협력적 국제 노력으로 진정한 안전 향상이 있었으며”, 테러범들이 대규모 공격을 감행하는데 필요한 운영 능력의 저하라는 결과를 낳았다고 한다.

보고서, 취약 부분 발견

이와 같은 발전에도 불구하고, 보고서에서는 “미진한 부분도 있었음”을 인정하고 있다.

첫째, 보고서에서는 알카에다와 산하조직들이 비록 약화되긴 했지만, 여전히 ‘미국에 있어 가장 시급한 국가안보 위협’이라고 천명하고 있다. 이는 알카에다의 이름으로 활동하고 있는 지역 조직들을 빈번히 이용하는 등 전술 변화에 부분적으로 기인한 것이다.

둘째, 2006년 이란이나 시리아와 같은 테러지원국들은 계속해서 무기, 훈련, 자금 등을 중동 지역 전역의 테러범들에게 지원했다. 쿠바, 북한, 수단 역시 보고서에서는 테러 지원국으로 명시되어 있다.

마지막으로, 보고서에서는 아직 해결되지 않은 이스라엘-팔레스타인 분쟁은 일부 테러범들에게 여전히 동기유발 요인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알카에다와 기타 테러단체들은 이스라엘-팔레스타인 분쟁을 이용해 새 조직원들을 끌어들이고

있으며, 하마스 주도의 팔레스타인 정부가 테러와의 결별을 거부하는 것과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여전히 계속되고 있는 폭력은 미국 정책입안자들에게는 우려사항으로 남아있다.

전체적으로 테러 25% 증가

이 의회제출 연례 보고서는 미국의 첩보집합소인 NCTC(National Counterterrorism Center, 국가 대테러센터)가 내놓은 분석도 포함하고 있다. 이 분석에 따르면, 2006년에 테러범들에 의해 살해, 상해, 납치를 당한 민간인들의 수는 약간 느는데 그쳤지만, 공격 횟수는 증가했으며 정도는 더욱 치명적이었다. 전년도에 비해 테러 공격 횟수는 25%가 증가했고, 이로 인한 민간인 사망자 수는 40%나 증가했다.

NCTC의 보고서는 2006년 세계적으로 민간인 74,543명을 목표로 총 14,338건의 테러 공격이 발생해, 20,498명이 사망했다고 밝히고 있다.

2005년 국가별 테러리즘 현황 보고서에서는 전세계에서 11,1153건의 테러가 있었다고 집계하고 있으며, 테러로 인해 74,217명의 사상자가 발생해 이중 14,618명이 목숨을 잃었다고 밝혔다.

이라크의 폭력사태는 NCTC가 집계한 전체 테러 공격의 45%를 차지했으며, 전세계의 테러로 인한 사망자 수의 65%를 차지했다. 이라크에서의 테러 공격은 2005년 3,468건에서 2006년 6,630건으로 거의 두 배 증가했다. NCTC에 따르면, 세계적으로 납치 사건은 50%가 감소했지만, 이라크에서는 300% 증가했다고 한다.

보고서는 또한 아프가니스탄에서 테러가 2005년 491건에서 2006년 749건으로 50% 증가했다고 밝히고 있다. 다시 급증하는 테러 위협을 퇴치하기 위해서는 국제사회가 약속한 지원을 실행에 옮기고, 반군격퇴 능력을 키우기 위해 아프간인들과 협력을 지속하며, 합법적이며 효과적인 통치를 확립하고, 마약 재배의 급증을 막아야 한다고 보고서는 촉구하고 있다.

NCTC는 테러 공격의 다수는 중동과 남아시아에 집중되어 있지만 남아시아에서의 전반적인 테러 공격은 10% 감소했다고 지적했다.

결과적으로, “2006년 테러 공격의 희생자들에 있어 상당 수가 회교도들이었다”고 보고서는 밝혔다. NCTC는 테러로 인한 총 민간인 사상자 중 무려 50%를 회교도로로 분석하고 있다. 테러범들은 대부분 이라크에 소재한 총 350곳의 모스크를 목표로 했다고 한다.

2006년에는 테러 희생자로 어린이들의 수가 늘어가는 모습을 보여, 1,800명의 어린이가 죽거나 다쳤는데 이는 전년도에 비해 80%가 증가한 수치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2005년과 마찬가지로, 정부 관리, 교사, 언론인들이 여전히 테러범들의 주된 목표였다.

테러, 중동과 남아시아 이외의 지역에서는 감소

그 밖의 곳에서는 전반적인 테러 공격이 감소했다. 아메리카 대륙에서의 테러는 주로 콜롬비아와 안데스산맥 접경 지역에 국한되었다.

보고서는 캐나다와 멕시코의 테러 퇴치 노력을 높이 평가하는 한편, 베네수엘라에 대해서는 우려를 표명했다. 베네수엘라의 후고 차베스(Hugo Chavez) 대통령은 쿠바 및 이란과의 관계를 강화했으며, 이웃 콜롬비아의 테러 단체들과 마약 밀매업자들이 국경을 통과하도록 허용한 바 있다.

유럽과 유라시아 지역에서는 테러 건수가 15% 감소했으며, 2004 년의 스페인 마드리드 폭파 사건이나 2005 년의 런던 테러 사건과 같은 대형 테러는 발생하지 않았다. 2006 년, 스페인과 프랑스 정부는 바스크(Basque) 분리단체인 ETA 통제에 상당한 진전을 보았으며, 터키 정부는 쿠르드 노동당(Kurdistan Workers' Party, PKK)과 격전을 벌였고, 러시아는 체첸 반군과의 싸움에서 여러 차례 승리를 거두었으며, 북아일랜드에서는 평화 확립을 위한 절차들이 계속되면서 폭력 사태가 계속 감소했다([관련기사](#) 참조).

아프리카에서는 비록 민란과 종족간 폭력의 위협을 받고 있긴 하지만, 테러가 거의 발생하지 않았다. 하지만 알카에다 결연 단체의 존재, 지역적 불안정, 테러범들에게 안전 지대를 제공할 수도 있는 느슨한 국경 통제로 인해 여전히 우려 지역임에는 틀림없다.

동아시아의 경우, 보고서에서는 점증하는 지역 대테러 조율을 강조하고 있다. 이 지역에서는 제마 이슬라미야(Jemaah Islamiyah)나 아부 사야프(Abu Sayyaf)와 같은 단체들의 위협에 대처하는데 있어 호주, 중국, 인도네시아, 일본, 필리핀이 주도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2006 년 국가별 테러리즘 현황 보고서](#)의 전문은 국무부 웹사이트에서 구할 수 있습니다.

더 많은 정보를 원하시면, [테러 대응](#)을 참조하십시오.